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7호 【루게 제25025호】 주체104(2015)년 9월 4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의주측정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의주측정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춘집동지, 조훈봉동지, 조용원동지, 홍영철동지, 윤동현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만진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측정계기공장에서 발전된 각종 계기류들을 더 많이 만들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직접 새 제품연구 종자도 안겨주시였으며 개발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신 전후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 같이 떨쳐나신 신의주측정계기공장의 일군들, 로동자, 기술자들은 련관부문의 과학자,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부닥치는 예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뚫고나가며 발전된 각종 계기류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이번에 공장에서 세계적수준의 최첨단측정계기를 연구개발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뻐했다고, 큰일을 해냈다고, 개발자들을 직접 만나보고싶어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거듭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혁명사적비와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여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신 신의주측정계기공장의 발전력사속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신의주측정계기공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측정계기생산기지로 장성강화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고 자신께서도 대단히

중시하고있는 신의주측정계기공장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국방부문에 쓰이는 새롭고 현대적인 측정계기들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공장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장성의 열쇠는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상태에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공장로동계급이 자기들이 어떤 일에서 일하는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높은 생산성파로 수령님들의 업적을 빛내여가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공직장, 조립직장, 과학기술보급실 등을

돌아보신 다음 새로 연구개발안성한 측정계기의 기술적특성과 성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만든 측정계기가 세계적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최첨단측정계기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연구개발한것은 경이적인 성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신의주측정계기공장에서 최첨단측정계기를 만들어낸것은 나라의 측정계기부문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는데서 큰 디딤돌을 마련한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것만 놓고보아도 우리 로동계급과 과학자, 연구사들의 애국심이 얼마나 뜨거우며 조선사람들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고 지혜로운가를 웅변으로 보여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측정계기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이번에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주체화, 현대화, 국산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발전된 측정계기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이 점령하여야 할 생산목표를 정해주시였다.

공장에서는 최첨단측정계기생산을 시작할만큼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으며 현존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식의 최첨단측정계기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그 질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CNC화함으로써 신의주측정계기공장을 로력절약형공장, 측정계기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전면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공장현대화사업에서 설비현대화 못지않게 중요한것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공장당위원회가 이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 혁명적인 문화생활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공장구내와 생산현장환경을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의주축정계기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강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식당과 후방경리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늘 강조하시는것이지만 노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그들이 더 큰 생산성과를 이룩할수 있다고 하시며 후방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서도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축정계기공장에서 당중앙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들중의 하나를 풀었다고, 당창건 일흔흔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하였다고, 최근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이룩되고 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선군조선의 필승불패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는 힘있는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축정계기공장을 돌아보니 공장로동계급의 혁명성이 대단히 높다는것을 절감하게 된다고 하시

면서 이런 로동계급들과 함께라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자신께서 이 공장의 명예지배인이 되시겠다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로동계급들의 가슴마다에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충정심이 뜨겁게 맥동치고있다고 하시면서 오늘의 현실은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중운동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로동

계급들이 1950년대 군자리로동계급들처럼 살며 투쟁한다면 정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하시면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함께 군자리로동계급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더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을 벌리는것이 좋겠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축정계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의 경제강국건설로선과 전략적구상을 높이고 결사관철의 혁명정신으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인민군대에 보내줄 더

많은 계기류들을 개발생산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신의주축정계기공장의 전체 로동계급은 공장에 불멸의 명도자욱을 새기시며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당중앙이 맡겨준 전투임무를 결사관철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친근한 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보냅니다.

나는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지난 67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방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나라의 과학이 현대적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인민생활이 날로 향상되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부흥하는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나는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하여 라오스와 조선 두 나라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조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긍지로 여깁니다.

이 경사스럽고 력사적인 계기에 즈음하여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시어 승고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합니다.

또한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국가를 보위하고 건설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것과 조선의 평화적통일위업이 하루빨리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승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쑤 말 리 싸 이 나 쏘

2015년 9월 2일

비엔티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마호무드 아바스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 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3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

마드 하싼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리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띄여져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3일 외교단장인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와 로베르투 풀린 브라질면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리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땀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띄여져있었다.

본사기자

라선시 큰물피해지역 인민들이 받아안은 크나큰 은정

【라선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큰물피해복구전투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라선시에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는 감동적인 화북이 펼쳐졌다.

인민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얼마전 많은 량의 물고기를 큰물피해를 입은 라선시인민들에게 보내주신데 이어 3일 또다시 그들의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안정과 피해복구에 필요한 물자들을 보내주시였다.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에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중대사들의결정하는 조선로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인민군대가 피해복구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을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고 라선시피해복구전투지휘사령부를 조직해주시였다.

인민중중의 중대조직들을 위해주신데 이어 거듭 배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을 받아안은 피해지역 인민들은 격정에 목매어 눈물을 흘리였다.

라선시에 편이 펼쳐진 인민사랑의 승고한 화북은 인민을 제일 사랑하시며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

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위대한 어머니로 높이 모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있을수 있는 참모습이다.

라선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어머니당에서 거들 안겨주는 크나큰 은정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여겨오신 우리 인민 모두의 운명을 책임지고 따듯이 보살펴주는 친어머니의 따뜻한 정이 어려웠으며 시한

의 인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가시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해주려는 웅심깊은 사랑이 담겨

져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선봉지구 중현동의 인민반장 리영복은 부모들도 자식들이 입은 큰물피해를 두고 격정만 하고있을 때 우리 당에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보내주었다, 그 사랑에 인민 반원들 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목메어 말하였다.

선봉지구 송평동의 김애옥과 중현동의 차영순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쓰고살 새 살림집을 지어주도록 하시고 식료품까지 보내주시였으니 천부모가 아니고시야 이렇

게 다짐하실수 있겠는가고 격정을 토로하면서 당의 은덕에 충정으로 보답할 결의를 다지였다.

라선지구 유현농촌출산사업소 로동자 김영만은 정말 어머니당의 품은 내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자애로운 품이다. 당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처와도 무서울것이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피해복구전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조선인민의 영웅주의와 로씨야와의 친근한 관계를 감동적으로 보여준 훌륭한 공연》

공훈국가합창단이 청봉악단과 합동출연하는 공연 모스크바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련일 진행

로씨야를 방문하고있는 공훈국가합창단과 청봉악단의 예술인들은 9월 1일 모스크바에서 또다시 공연무대를 펼쳤다.

이날 공연장소인 모스크바문화센터로는 우리의 예술인들의 첫날공연이 대성황리에 진행된 소식에 접하고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이 흥성이었다.

공연무대에는 주제조선의 넋을 보여주고 로씨야인민의 가슴마다에 애국주의정신을 심어주는 노래들이 울라 시작부터 관중들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관현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월명야애 사과바다》, 여성2중창과 남성합창 《생물리에서》, 관현악과 노래편곡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이》 등의 종목들은 민족적항위 기질에서도 현대적미감에 맞는 음악형식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출연자들은 불멸의 태양기높이 반세기만대결전의 승전포성을 울리며 역세계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백두산혁명강군의 전투적기개를 관현악과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 남성합창 《조국의 바다지켜 영생하리라》, 여성독창과 남성합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에 담아 피성마냥 더치며 장대를 뒤흔들었다.

경쾌하면서도 웅장한 남성중창과 경음악 《근위부대자랑가》, 《병사들 사내대장부들이여》와 깊은 사색과 정서적여운을 안겨주는 남성독창과 무반주합창 《전호수의 나의 노래》, 《넋은 대지 씨비리》 등 무대에 오르는 모든 종목들이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특히 관현악곡 《세계명곡품음》을 훌륭히 연주하여 높은 형상실력을 보여준 공훈국가합창단 관현악단에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날이 발전하는 주제예술의 면모를 뚜렷이 파시하며 청봉악단의 가수들이 공훈국가합창단의 예술인들과 함께 관현악과 여성중창과 합창 로씨야노래편곡 《평화를 위하여》에 출연하자 장대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청봉악단의 가수들은 맑고 개성적인 목소리와 세련되고 우아한 몸동으로 로씨야노래들인 《푸른 수건》, 《매도는 새, 떠날 때는 왔다》와 《로씨야여 너 노래편곡》을 로씨

야말로 흥취나게 불러 관중들을 격정과 흥분으로 끌었다.

알렉산드르브로프링 로씨야군대아카데미아 협주단의 관복있는 가수들이 공훈국가합창단의 연주에 맞추어 로씨야노래 《군함의 밤》, 조선노래 《내 고향》을 남성2중창과 남성독창으로 잘 불러 조로 두 나라 인민들사이 에 날로 두터워지는 친선의 정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준엄한 날에나 영광의 날에나 신념의 불은기를 높이 들고 당을 따라 주제혁명의 길을 억세계 걸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새겨져 있는 노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관람자들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공연이 끝나자 관람자들은 출연자들에게 축하말을 안겨주고 열렬한 찬사와 박수갈채를 보내며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공훈국가합창단이 청봉악단의 주요배우들과 함께 모스크바에서 련일 진행한 공연은 로씨야인민들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기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로씨야국방성 중앙군악단 공보관 미하일 로브는 공연이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게 훌륭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격정을 터놓았다.

조선의 공훈국가합창단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합창단이다.

로씨야의 군인들과 관중들은 공연에 완전히 심취되었다.

합창단의 공연이야말로 불패의 인민의 공연이다.

이런 음악을 가지고있으며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인민은 필승불패이며 평화를 안아오고 조국건설에서 새로운 경지만을 개척할것이다.

조선이 음악정치로 영광을 떨치고있는데 대하여 감탄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음악정치의 거장인 김정은원수님께서 건강하시어 주제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데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시며 조선인민의 힘찬 노래로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시기를 바란다.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는 노래는 하나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노래라고 심정을 토로한 류보브사적관 관장 루진과 조선예술의 높은 경지를 체득하였다고 한 알렉산드르브로프링 로씨야군대아카데미아협주단의 로씨야인배우 아나니예브는 공훈국

가합창단의 음악들은 예술적으로 완성된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합창단의 공연에서 배울점이 많다, 강조하였다.

에뎬벤호사사무소 변호사 보르프리에브는 공연에서 감명깊은것은 로씨야노래의 정신을 관람자들에게 완벽하게 전달해준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보기는 처음이다, 놀라운 정도로 각이한 양상의 노래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해내는 공훈국가합창단과 청봉악단은 최고의 예술단이라고 말하였다.

국제법률가 헤가이는 조선인민의 영웅주의와 조선과 로씨야인민의 친선의 정을 보여주는 공연은 눈높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다, 이런 훌륭한 악단을 가지고 노래로 인민들을 비례주의와의 투쟁으로 불러일으키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용감성의 상징이다, 조선의 용감성, 힘의 원천이 바로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에 함축되어있다, 이 노래는 정말 인상적이고 격동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혁명의 노래로 승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공연은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외국손님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건 67돐에 즈음하여 3일 주제 경제 및 무역참사단과 유엔아동기금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통일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려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씌여져 있었다.

경제 및 무역참사단 유엔아동기금대표부 대표단 귀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건 67돐에 즈음하여 주제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3일 경성유치원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먼저 어린이들 속에 계시며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모신 미술작품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려었다. 이어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하여 어린이들이 나라의 창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는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유치원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어린이들의 예술소품공연을 관람하였다.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70돐 행사에 참가하였던 우리 대표단 귀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용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70돐 행사에 참가하고 3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리일환 조 대표단이 3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1부상이 전송하였다.

남아프리카에 가는 국토환경보호성 대표단 출발

남아프리카의 미반에서 진행되는 제14차 세계산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김정준상을 단장으로 하는 국토환경보호성 대표단이 3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엘살라미 방문 조선 직업총동맹 대표단 출발

평양에서 판계부인 일군들과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선전화 창작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선전화를 창작하였다.

우부분에 《1945-2015》라는 글말이 씌여진 선전화에는 풍선들과 기구들이 떠오르는 10월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대 길이 전하며 자주위업수행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한 우리 당의 위대성과 불패성을 파시하는 당창건기념탑과 조선로동당이 형성되어 있다.

선전화는 로속하고 세련된 명도주제 선군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온 위대한 우리 당의 창건기념일을 민족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려는 천만군민의 혁명적열정을 반영하고있다.

새로 창작된 선전화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당창건 일흔년을 향한 총공격전에서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들 새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어 나라의 인민적시책은 남이 감수 못 할것이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해 존재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입니다.》

이것은 한평생 인민행렬차들 타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으신 뜻을 빛나는 헌신로 꽃피워가고계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는 이 땅의 모든것이 무심히 인격되지 않았다. 그것은 한평생 인민행렬차들 타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그렇다. 나에게는 이 땅이 그대로 절세의 위인들의 인민사랑의 기념비로 인격은다.

하거늘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이어져온 우리 조국의 력사가 그대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긍지높은 사건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방경찬

파멸은 군주국의 일본의 속명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지 70년이 되었다. 전대미문의 죄수와 파괴를 가져온 대지는 일제 강점기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지금 동방과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 자자손손 잊지 말아야 할 슬픔의 비환 대가를 되새기고 있다.

일본이 발표한 《대평양전쟁 70년 담화》를 보자.
수상 아베는 인류를 전쟁의 불도가니속에 몰아넣었던 전범국의 수장으로 수양 양피리 피악에 대해 사죄했어야 했다. 그러나 담화에 선 공헌 인정도, 화친번외 사죄도 담겨지지 않았다. 이것이 일제의 해외침략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퀴비들과 군주국의 망명을 되살리는 망언일뿐이다. 이것은 과거의 죄악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으며 재침의 계를 나아가겠다는 로골적인 선언이다. 게다가 정부고위인물들을 선대로 한 국무의정들을 집단적으로 야수인격자로 몰아가 《야마모토론》을 부른 참배놀음을 이른소련적 벌려놓은 것이 그것을 다시금 입증해 준다.

대우기 스즈키보살을 내는 것은 화악내침은 선제공격권이 왕왕 되어 나오는 국회에서 전쟁헌법적 조항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발맞추어 공격의 수업을 조현된 일본(사위대)는 군사적외의침략을 위한 전담부구입행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국가안전 이칙을 띠고 광범적으로 벌어지는 군주국의망명들 일제가 《동방의 맹주》로 군현화되어 침략의 칼을 버려던 때를 반복해 한다. 그 속과 같이, 영도에 있어서 어찌날 파쇼제국의 복사판인 일본의 팽창은 단순히 헌정권속의 국무외정대가 벗어난 살육이 아니다. 제침을 부르고자 군주국에게로 질주해 온 70년의 복발이다.

돌이켜보면 1945년은 일제 제 패망한 해인 동시에 새로운 일본의 통장을 알리는 의의있는 해로 역사에 남을수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무모한 침략의 길에 나섰다가 비참하게 패한 이 십나라에 재침의 기회를 주었다. 침략과 학살이 아니라 친선과 화합으로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기를 진실로 바랐다. 전후 일본에 전쟁과 전후적보

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이 제정된 것도 바로 그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의 속심은 전혀 달랐다. 배망의 눈물을 멸구는 순간에도 가슴속에 품어버린 것은 오직 패망에 대한 앙갚음뿐이었다. 일본이 무조건항복을 선언하기 전에 벌써 왜왕제복을 항복조건으로 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한것은 다름아닌 군주국의일본을 보존하고 부활시키자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었다. 일본반동들은 자국민들의 머리속에 군주국의사상을 심어주는것과 함께 그것을 일본의 절대불변의 정신적기둥, 정치리념으로 만들려고 타산하였다. 군주국주의와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할것을 바라는 진정한 세력들에 대한 탄압과 모욕가라는 음모적방법으로 악랄하게 감행해 왔다. 그럴수록 사회의 우익화, 군주화라는 명목이 추진되었다. 군주국의독소는 일본의 정치와 경제, 문화로부터 사람들의 인식영역에 이르기까지 깊이 뿌리박혔다. 1999년에는 일본군주국의 피비린내나는 상징인 《히노마루》와 《기미가노》가 국가, 국가로까지 되었다. 2000년 수상 모리 가 일본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신》의 나라라고 되가라졌은 《제국시대》와 더불어 왜 왕제에 의거한 2중적권력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일본이 군주국의국가라는것을 제세대에 선언한것이나 같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진도와 흥망은 무엇을 정치리념으로 삼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릇된 정치리념은 해당 나라와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과 번영을 저해한다. 역사적의준엄한 징벌을 받은 군주국주의를 다시금 정치리념으로 선택한 일본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것은 명백하다. 제침이다. 《명치유신》후 반동적인 군주주의를 무기로 해서 해외침략의 길에 뛰어난 과거 일제의 행적을 그대로 부활된 군주국의일본의 침로이다. 그것은 지금 실현에 옮겨지고 있다. 광범적인 역사외복은 제침의 전수표이다. 일본의 해외침략은 언제나 역사외복으로부터 시작되곤 하였다. 지난날 일제군부는 조선침략을 준비하면서 특공참모본부에 역사외복을 전문으로 하는 집단을 꾸려놓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겠다는 열로 태양같은 《임나일본부》설을 조작해냈다. 일본의 역사외복학들은 세계를 거들하면 계속되고 있다. 1950년대 중엽에 은

제, 축소로부터 시작되어 전면외복, 부정, 찬양에 이어진 역사외복학들은 세 세기에 들어와 극적으로 되었다. 일본반동들은 피로 얼룩진 저들의 과거사를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제작에 매달리는 한편 문학작품과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그들 극구 찬미하는 사회적복조까지 조성하고 있다. 결국 과거 조신과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일체의 침략을 《해방전쟁》, 《문명》과 《연영》을 가져다준 《정의의 위업》으로, 자국을 전범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잘못 인식한 정신적기행자들이 무수히 자라고 있다. 일본의 역사외복학들은 칠투칠미 제침을 위한 사회적복조기조성을 정반하고 있다. 일본군주국의집단이 제침한 《동한론》이 자국민속에서 조선민족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하는데 있었다는것은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 아니다. 오음은 허구적인 《복조선위협》설과 《국민감정론》을 부르고자 일본사회에 대조선적대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당시 일본반동들은 우리의 미생활이 떨어지는듯이 높아지는 히조선과 정보공공외의시설을 축적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학공조를 로골적으로 확대강화하고 있는 것은 군사적전력을 높여 선제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이다. 제침은 《사위대》의 사망으로 되었다.

극도로 군사화된 정부는 일본을 제침에 로 더욱더 미끄러지고 있다. 패망후 일본반동들은 침략과 전쟁수행을 위한 물질적기초인 군수산업을 재구성시키고 확대하는데 열을 기울였다.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은 일본에 《환국의 소나기》를 뿌려 주니와 외해였던 군수기업을 부활시킨 계기로 되었다. 미국의 특수부대가 여러 경제개발을 극한 일본정부에 수심년동안 군수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편이 하여 주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속에 전담기업체로 설립되어 부흥되고 있다. 초기 일본의 군사산업은 《전수방위》전력이었으나, 전적으로 방위만을 한다는 이 전력이 아니라 《사위대》의 작전법규는 일본의 명종과 명령에 국한되었다. 《전수방위》전력은 그후 《전방위》전력으로, 평정전력은 공공연한 해외침략전력으로 바뀌었다. 군사적전력으로 위대한 《1,000 mile 해상교동로 방위》로부터 인디아양과 연결되는 《2,000 mile 해상교동로 방위》로 대폭 확대되

었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의 《반테로전》을 제침야망실현의 절호의 기회로 여긴 일본반동들은 《테로위협에 대한 대응》을 안보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고 해외공격형의 군사전략을 폈다. 《사위대》의 작전명령에서 지리적으로는 완전히 없어졌다. 개정된 《일미방위위협지침》에 따라 일본《사위대》의 활동범위가 전세계에 확대되었다. 일본은 무력비도 쓰려면 겨냥했던 북방중시로부터 서부중시로 바꾸었다. 혹가이도에 집중배치되었던 《사위대》부대는 우리 나라와 가까운 서부일본지역에 재배치되어 조선반도를 노리고 있다. 조신을 대폭침략의 전초기지로 타고있는 야심을 품고 있는 일본반동들은 각각 군사학공조를 조신외의 시무목적으로 제침하는 한편 우리 나라를 침공하기 위한 범의별 명목의 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최근년간 일본이 미시일개발과 항공모함형함정전조, 다목적스텔스전투기구입에 열을 올리고 미해병대와 유사한 무력장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 미국, 남조선과 정보공공외의시설을 축적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학공조를 로골적으로 확대강화하고 있는 것은 군사적전력을 높여 선제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이다. 제침은 《사위대》의 사망으로 되었다.

극도로 군사화된 정부는 일본을 제침에 로 더욱더 미끄러지고 있다. 패망후 일본반동들은 침략과 전쟁수행을 위한 물질적기초인 군수산업을 재구성시키고 확대하는데 열을 기울였다.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은 일본에 《환국의 소나기》를 뿌려 주니와 외해였던 군수기업을 부활시킨 계기로 되었다. 미국의 특수부대가 여러 경제개발을 극한 일본정부에 수심년동안 군수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편이 하여 주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속에 전담기업체로 설립되어 부흥되고 있다. 초기 일본의 군사산업은 《전수방위》전력이었으나, 전적으로 방위만을 한다는 이 전력이 아니라 《사위대》의 작전법규는 일본의 명종과 명령에 국한되었다. 《전수방위》전력은 그후 《전방위》전력으로, 평정전력은 공공연한 해외침략전력으로 바뀌었다. 군사적전력으로 위대한 《1,000 mile 해상교동로 방위》로부터 인디아양과 연결되는 《2,000 mile 해상교동로 방위》로 대폭 확대되

국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출로를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전쟁에서 찾는 것은 고질적인 생존방식이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허덕이는 일본은 전쟁을 갈망하고 있다. 원로, 연로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끌어들이고 있는 이 십나라가 최근년간 자원이 풍부한 지역들을 제침의 대상으로 집적하고 주변나라들과의 영토분쟁에 기울이고 달려붙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일본은 더이상 위정자들이 임박처럼 외워던 《평화국가》가 아니다. 정계와 군부, 군수업계가 하나로 유착되어 군주국에 로 미친듯이 내달리는 일본은 해외침략의 기습을 부리는 전쟁국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정요소이다. 국제정세변화를 포교하게 악용하여 각종 전시법을 강압적합함으로써 사실상 패망으로 박달당한 공권력과 참정권을 부활시킨 일본은 해외침략의 합법화를 위한 마지막공정인 헌법개각행동에 나섰다. 오늘날 일본반동들이 내지는 군주국의팽창은 제침이 현실로 막두르고 있다는것을 가변한 실재이다. 그러나 배망의 야망속에서 나타난 군주국의일본은 오산하고 있다. 제침은 제 2의 패망, 자멸의 길이다. 과거 일제의 침략사가 패망으로 막을 내렸듯이 부활된 군주국의일본의 패멸도 달리는 필수 없다. 남강독적인 방법으로 남의 땅을 강탈하고 지배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역사관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잘못된 과거에서 교훈을 찾고 그것을 피로 삼기 민족은 각성하고 분발하여 새 역사를 창조하는 법이다. 일본이 우리 공화국이 하는 일예에 대해 사기시킨 걸고들며 방적인 일각을 움직이고 있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선조선의 위력에 대한 불안과 꿈틀거리는 제침야망을 실현할수 없게 된다는 초조감의 발현이다. 오늘 우리 민족은 120년전 선조에게 배반하고 황후를 칼뭇머리쳐도 눈물로 감수해야만 했던 민족이 아니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것은 수많은 청장년들이 생육을 당하고 20만명의 너성들이 성조국가로 통일당해서 지어 말라 갈, 성과 이름, 우리 나라의 표준시간까지 빼앗겨도 하소연조차 할수 없었던 비참한 식민지역소국이 아니다. 민족의 존엄은 자기 자신의 손으로 지켜야 한다. 땅국은 순간이고 북국은 천년이다. 피눈물나는 민족사의 교

훈을 배 새기고 일떠선 우리 인민은 지금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우리 공화국은 당당한 핵보유국, 정치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 있다. 지난날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했던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에 떨치고 일어나고 있다.

유독 피비린 죄악과 만행의 주범이었던 일본이 배반적인 역사관을 자대로 만사물 제머 제 축출을도 모르고 어려서 세늘대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과거죄행에 대한 인정이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것》으로 된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이번 《대평양전쟁 70년 담화》에서도 수상 아베는 일본인구의 80%가 전후세대로서 그들이 과거 죄를 계속할 수명을 지워서는 안된다고 떠벌이면서 과거죄사에 대한 사죄가 서 있을수 없다는것을 공공연히 제했다. 그러나 추악하고 철면피한가, 이것이 세계에 비추려는 일본의 《망성》이고 《도덕》이다. 오욕전에 한 작가는 인간은 얼굴을 붉히는 사람은 불필요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천인공노당 대량살상민행을 저지르고도 얼굴을 전혀 붉히려는 모순은 후안무치한 인간들, 비열하고 잔혹한 모순로 국제법상책임과 도덕적무를 회피하는 나 같은 인간사회에서, 우리 행성에 서 존재하지 않자였다. 국제무대에서 도덕적미수하고, 정치전쟁에서 조종패자라는 일본은 오늘날 있고 배일이 없는 가변한 실재이다.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 일본의 생존을 담보하는 길은 올바른 역사관, 도덕관을 가지고 최함은 과거를 하루빨리 청산하는데 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일변한 세계가 바뀌어도 과거 일제가 저지른 죄악은 절대로 백지화될수 없다. 반인륜적범죄에 시효란 없다.

천주탄대를 두고서라도 일본의 백년외역을 끝까지 쫓아내야 하는것이 우리의 한을 기어 이 풀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의 의의이다. 백배, 천배로 불타오르는 조선민족의 대일투쟁의심과 보복열기, 국제사회의 긴박감등을 의면한대 일본이 회피의사에 빠져 제침의 길에 나선다면 차피는 파멸의 무덤뿐이다. 이것은 70년전 역사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자기 제침을 국시로 정한 오늘의 일본에 주는 엄숙한 경고이다. 배 금 희

관계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전체를 둘러싼 소용돌이로부터 평화와 안정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부터 회화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우는 국지전략의 계기로 된 북남교류금전추진과 공동보도문발표에 대하여 우리 인민들은 물론 온 세계가 매우 다 행동스럽게 생각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보석도 닦아야 빛나는 법이다. 조선반도와 우리 민족의 운명적인 시기에 북남관계를 수놓을 여되고 그것을 철저히 리행하는것은 합의달성에 못지 않게 중대한 과업으로 된다.

이런 합의 성과적으로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관건적문제는 북과 남이 과거에 위배되지 않고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멀리 있을 때마다 풀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대담하게 관계개선의 길을 열기 위한 건설적인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북과 남은 더이상 무모미한 언쟁과 불치같은 논쟁과 시간외 정역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합시다.》
과거에만 집착하며 대결관념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개방적 태도를 잃지 않고 진전해나가는것은 이번 합의의 성과적리행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북남교류금전추진 결과의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송고한 리념의 승리이다. 주의 주장과 전언에 빠져 불미스러운 과거에만 매달리던것은 이번 합의가 이룩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북과 남이 민족의 운명, 북남관계의

장래를 앞에 놓았기에 조선반도의 군사적전장이 루페일이 최초조로 치달은 일촉즉발의 엄중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긴장완화의 전란적국면을 열어놓을 수 있었다. 도대체 왜 필 북남관계의 새로운 변혁의 역사는 북과 남이 그러한 자세와 리장을 계속 견지해나갈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북남관계를 리행해나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의견상이가 과잉을 수 있지만, 길은 뜻을 가지지만 속으로는 그것을 아니쯤게 생각하며 합의리행에 제동을 걸려는 불순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있었을 것이다. 새것의 탄생은 언제나 진공을 겪는 법이다. 북과 남이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에 충실하며 불미스러운 과거를 털어버릴 의지와 결심한 가진다면 과감 도전을 물리치며 능히 북남관계의 새 역사를 기록해나갈수 있다.
북남사이의 쌓이고 쌓인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대담하게 관계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분위기를 마련해나가는 여적요구이다.
용이기에야말로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전력의 획기적구권을 열어나가야 할 때이다.
장구한 민족분열의 나날 북남대결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한 정신적 물질적피해는 얼마나 막대한가.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북남공동번영에 이바지하여야 할 엄청난 세부들이 헛되이 소모되어왔다. 이것을 과연 더이상 용납할수 있겠는가. 험악한 경쟁과 자그마한 리익에 사로잡혀 민족의 맑은 자정을 저해해 주는 행위에 이제는 결단코 중지를 부를 해야 한다.

동쪽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진시켜나가는것만이 민족의 운명, 통일조국의 휘황한 배일을 위해 북과 남이 때때로 할 참된 애국의 길이다.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겨레의 새로운 꿈을 열어나가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그러한 한 힘이 있다.
북과 남은 전쟁법규의 엄중한 국면을 평화와 안정, 회화와 신뢰의 전란적기조를 만든 그 순간으로 대담하게 관계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분위기를 마련해나감으로써 겨레의 기대에 부응하고 조선민족의 기개를 온 세상에 떨쳐야 한다.
세계는 무단히 전진하고 있다. 북과 남은 더이상 무모미한 언쟁과 불치같은 논쟁과 시간외 정역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의 해방과 함께 시작된 민족의 분열로 피었던 우리 겨레의 심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북과 남은 이 기회에 민족의 길에서 북남과 대결의 과거를 뒤고 민족연합과 북남관계개선의 전란적국면을 열어놓은 훌륭한 경험이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온 세계앞에 확언한 7.4 공동성명의 발표는 반쪽과 질신만이 완주하던 북남관계에 처음으로 자주통일의 새날을 비추며 역사적사건이었다. 어찌까지 불신과 대결로 얼룩졌던 북남관계에서 이런 전환이 일어나리라고 과연 누가 생각할수 있었겠는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한 회화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전란적계도우에 올려세운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발표도 불신과 대결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 대담하게 앞으로 전진할 여적에 약속충만인 안이민족사발이었다. 그 나날에 북남관계개선을 공동번영의 길에서 이룩된 긍정적인 성과들은 북과 남이 멀리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끼리의 힘찬 결심에 대담하게 결심하고 실천행동에 나선다면 북남관계에서 많은 문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세인을 놀래우는 역사적기조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고귀한 경험으로 입증해주었다.
대결의 력사에 짓눌려있던 우리 겨레는 6.15 통일선언의 감격적인 현실을 통하여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친 민족적기회를 결코 놓을수 있는것이 아니며 우리 민족에게는 북남관계개선의 기계를 창조할수 있는 기대한 힘이 있다는것을 특독히 알게 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낡은 대결관념에서 벗어난 신뢰를 다지고 화합을 이루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로 나아가게 하는 사상정신적힘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힘에 선다면 북과 남은 얼마나 힘 있게 손을 잡고 평정한 미래에 로 나아갈수 있다.

지금 온 겨레는 북과 남의 괴리한 경쟁과 현실의 싸움 교류를 거울로 삼고 북남관계개선의 건설적인 분위기를 적극 마련해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겨레의 기대와 믿음에 애국의 용단으로 적극 화답해나간다면 이번 합의리행과정을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바로 알고 언행을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대변인 대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해외행각중인 남조선집권자가 최근 비무장지대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두고 《북의 도발사태》, 《나누기의 건설적역할에 감사를 드린다》, 《나누기 하는 온당치 못한 발언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하여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금 온 겨레는 최근 북남사이에서 조성되었던 일촉즉발의 무력충돌위기가 수습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교류금전추진에서 합의된 공동보도문이 성실이 리행되어 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새롭고 경이 미현된것을 한결같이 축하하였다.
이번 북남합의에 따라 며칠후인 7일에는 출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기 위한 직접시찰추진국이 예정되어있으며 관계개선을 위한 향후일정들도 준비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발을 거듭하면서 다시 북남관계에 복잡성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해외행각에 나선 남조선집권자가 《북의 비무장지대도발사태》, 《언제라도 긴장을 고조시킬수 있다》, 《나누기 하면서 최근 조성된 사태의 진상을 외곡했음뿐 아니라 그 누구도 《건설적역할까지 운운하며 우리를 침히 모욕하는 극히 무엄하고 초보적

인간사랑은 조선의 국책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민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문제 존재하지 않는 조선에서 사는 누구나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사회는 모든 성원들이 로동과 휴식의 권리,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적인간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있는 사회가 바로 조선사회인 것이다.

조선민족의 자주적권리를 높은 수준에서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있는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소통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탄을 받고 있다.
발기자공산주의자 동맹 명예위원장인 송태욱에 투고한 글에서 조선에 대한 실업자가 집없는 사람도 없으며 무료의무교육과 무상치료를 받은 조선의 아동들이 실 시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다만 서방이 왜 조선을 《인권지》로 몰아붙이는가? 그것은 조선이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조선의 사회주의를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조선은 이예 맞서 강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하였다. 그래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인권문제》를 걸고들여 위협해 나가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끄떡하지 않으며 반대로 미국이 조선을 두려워하고 있다.
로씨야 평화 및 통일 당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소련모두가 평화롭게 살고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당과 국가의 모든 정책이 인민

들이 분리항쟁으로 저항되는 조선과 같은 나라가 존재하고있는 현실을 미국은 용인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수리아인론 《알 바이스》는 미국의 《인권》문제는 조선에 침략하기 위한것이 아니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인권》공세는 일시적인 전술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이다. 《인권문제》를 구실로 조선을 약탈하려는것이 바로 미국의 목적이다.
발기자조선인민위원회는 불례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실었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통에는 사회주의조선에 지구상에 없애버리려는 절은 속심이 갈라졌다. 미국은 조선과의 대화를 바라지 않고 있으며 제재와 긴장화만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이 《전략적대선》정책에 로 북과 조선의 국면을 날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인들까지도 오바마의 대조선정책을 비난하면서 《전략적대선》정책이 완전한 실패책이라고 인공하였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인권문제》를 둘러싼 모략소통을 고안하여내고 있다.
미국인사이드인턴셔널기구조성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유린》이라는 비방에 역겨움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이는 미국이 조선에 대한 그릇된 전제를 걸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을 문명하게 대하며 저들의 잘못을 시정할 때 까지
조선에서는 실업자를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다고 하면서 사회주의로동분배를 찬양하였다.
글은 우리 인민이 무료교육, 무상치료를 받은 것 사회화해속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는 데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에서 인권이 훌륭히 보장
조선에서는 실업자를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다고 하면서 사회주의로동분배를 찬양하였다.
글은 우리 인민이 무료교육, 무상치료를 받은 것 사회화해속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는 데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에서 인권이 훌륭히 보장
조선에서는 실업자를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다고 하면서 사회주의로동분배를 찬양하였다.
글은 우리 인민이 무료교육, 무상치료를 받은 것 사회화해속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는 데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에서 인권이 훌륭히 보장
조선에서는 실업자를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다고 하면서 사회주의로동분배를 찬양하였다.